

예배부흥! 새벽예배 20명, 금요축복기도회 30명, 주일예배 100명

Let's Pray for Church Growth!

(Dawn Prayer service 20 people, Friday service 30 people, Sunday service 100 people)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회' 매 주일 10시30분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We Hold an Intercession Meeting at 10:30 am Every Lord's Day in the Sanctuary.

담임목사 라디오 설교 **AM1590** 매주 화요일 오전 6:30~7:00



특별 간증 집회 Special Service

일시: 3월 22일(주일) 10시 40분 장소: 순복음중앙교회 대성전
 강사: 이상준 장로(순복음세계선교회 선교위원장)

1. 새가족 환영 Welcome New Comers!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따뜻한 인사가 큰 힘이 됩니다.
 Welcome all New Comers. A Warm welcome becomes a big strength to them.

2. 헌화 Altar for Flower

이번 주 헌화는 강효흔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함으로 섬겨주셨습니다.
 Today's altar for flower supported by Deacon. Bruce Kang's family

3. 애찬 Meal

이번 주 애찬은 강효흔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함으로 섬겨주셨습니다.
 Today's meal prepared by Deacon. Bruce Kang's family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 ▶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 ▶ 흥필교 권사님(그로스 포인트 양로병원)
- ▶ 강경희 집사님 시모님 건강회복
- ▶ 토마스 게일 집사님(특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 출타중인 성도님들을 위하여(한수잔 성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3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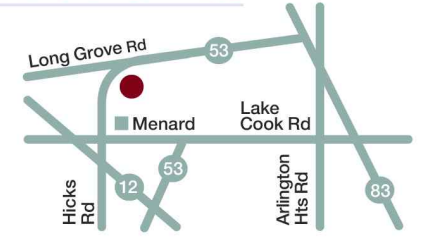
SERVANTS 섬기는 사람들

순복음세계선교회총재 Full Gospel World Mission Foundation	조용기 목사 Rev. Y. G. Cho
순복음세계선교회이사장 Full Gospel World Mission Foundation	이영훈 목사 Rev. Y. H. LEE
담임 Senior Pastor	황선욱 목사 Rev. S. W. Hwang
부교역자 Associate Pastor	류성연 목사 Rev. S. U. Yoo
	윤선희 전도사 Pastor S. H. Yoon
교회학교 Youth Worker	최제이슨 형제 Brother Jason Choe
동시통역 English Interpretation	문수지 자매 Sister S. J. Moon
지휘 Conductor	박명수 집사 Deacon M. S. Park
반주 Piano	유성애 자매 Sister S. A. Yoo

SERVICE INFO 예배안내 및 정기모임

새벽예배(월~금) Morning Prayer Service	5:30am
주일예배 1부 Sunday Service, 1st	9:30am
주일예배 2부(영어 동시 통역) Sunday Service, 2nd(English Interpretation)	10:40am
금요일예배 Friday Service	8:20pm
청년부 Young Adult (1st Tue. of each month)	7:30pm
교회학교 Sunday School	11:00am

DIRECTION 찾아오시는 길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We gain strength when we meet!

20949 IL Rte 53, Lake Zurich, IL 60047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순복음중앙교회 주일예배”

Making God's History on F.G.C.C. Sunday Service

※ 주일1부예배 오전 9시30분 / 2부예배 오전 10시45분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Welcome all new comers!

설교: 황선욱 목사
Rev. Sun Wook Hwang

찬양과 경배 다함께 Worship & Praise with Team Life Together
사도신경 다함께 The Apostles' Creed Together
찬양과 경배 다함께 Worship & Praise with Team Life Together
대표기도 1부: 황선욱 목사 / 2부: 유연봉 장로 Prayer Rev. S.W. Hwang / Elder. Y.B. Yoo
찬 양 호산나 샤론 성가대 Anthem Sharon Choir
*성경봉독 사사기 Judges 7:15-18 다함께 *Scripture Reading Together
설 교 승리의 노래, 부르고 싶습니까? 설교자 Sermon Do you want to sing a song of victory? Preacher
헌금기도 1부: 황선욱 목사 / 2부: 오정자 권사 Offering Prayer Rev. S.W. Hwang / Sir. Deaconess. J.J. Oh
헌금송 샤론 성가대 Offering Praise Sharon Choir
광 고 1부: 찬송가 Hymn 411 / 2부: 샤론 성가대 Announcement Sharon Choir
헌금축복기도 설교자 Benediction for Offering Preacher
*주기도송 다함께 *The Lord's Prayer Together
*축도 설교자 *Benediction Preacher

* 표는 일어서서 드립니다.

새 찬양 New Song

주님은 나의 사랑

Don Moen 올데이선스 역

주님은 나의 사랑 - 내 삶의 의미 - 유되시 - 며
어둠 속에 - 내 소망 - 내 노래 되 - 시 - 네 -
주님이 주 - 신 기쁨 - 날이 갈수록 커 - 제 가리 - 라 -
영원 영원히 - 감사 드리 - 리 - 리 -
1. 주님 주 - 신 것 - 다 양 수 가 없 - 네 -
2. 주의 이 - 림 을 - 영 원 히 높 이 - 며 -
우릴 선택해 - 불 러 주 - 셧 네
찬 양 의 제 사 주 - 께 드 리 - 리 라
보좌로 - 부터 - 생 명 과 강 건 - 함 -
주 계 신 - 께 에 - 나 살 기 원 하 - 니 -
어느 곳 에 나 - 흘 러 넘 - 치 네 - D.C. Fine
주님 님 도 록 - 날 빛 으 - 소 서 -

설교: 황선욱 목사

3/20/2015 (Fri.) 8:20pm

찬양과 경배 <i>Worship & Praise with Team Life</i>	다함께 <i>Altogether</i>
사도신경 <i>The Apostles' Creed</i>	다함께 <i>Altogether</i>
찬양과 경배 <i>Worship & Praise with Team Life</i>	다함께 <i>Altogether</i>
대표기도 <i>Prayer</i>	설교자 <i>Preacher</i>
성경봉독 <i>Scripture Reading</i>	다함께 <i>Altogether</i>
설 교 <i>Sermon</i>	설교자 <i>preacher</i>
통성기도 <i>Prayer</i>	다함께 <i>Altogether</i>
축도 <i>Benediction</i>	설교자 <i>Preacher</i>

짧은 이야기 깊은 생각

Short Story deep in though



중국에 가면 '모소(moso)'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는 심고 나서 5년 동안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5년 동안이나 물을 주고 또 물을 줘도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5년이 딱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75cm씩 자라가지고 6주만에 5~6m의 큰 대나무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 대나무는 지난 5년 동안 자라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또 내린 것입니다.

모소 대나무의 5년은 준비하는 5년이었습니다.



황선욱 목사(Head Pastor, Rev. Sun Wook Hwang)

현) 순복음중앙교회 담임
한세대학교 B.A. / M.Div. / Th.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Min과정 중
KOSTA/ GKYM/ Youth Specialties KOREA Core
전) 오아후순복음교회 담임
여의도순복음교회 프뉴마 청년선교회 담당

다음주(3/22) 예배위원

예배	대표기도	헌금기도	애찬	안내	교회차량
1부	황선욱 목사	황선욱 목사	김종인 장로	유연봉 장로	정수연 집사
2부	백사남 장로	강희경 권사		백사남 장로	



나는 나의 자화상을 본다 (I See My Self-Portrait)

고후(2Co.) 5:16~17

자화상이란 스스로 그린 자기의 초상화를 말합니다. 실제로 도화지에 그리지는 않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에 그린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의 자화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누리며 천국 백성이 된 자화상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1. 옛 사람과 그의 자화상 (The old Self and his Self-portrait)

- 1)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되었음
- 2) 가시덤불과 영경귀를 내는 땅에서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당하게 됨 (창 3:17~18)
- 3)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사망의 세력에 매여 살게 됨 (롬 5:12)

2. 잘못된 바라봄의 법칙 (The incorrect way of visualization)

- 1) 부정적인 자화상을 바라보면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됨
- 2) 옛 사람의 자화상을 바라보고 불안과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탄식과 불신앙의 말을 하면, 그 모습이 실제로 그 삶에 이루어지게 됨 (민 13:31~33)

3.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A new creation regenerated in Christ)

- 1) 예수님을 믿으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됨 (요 3:3~5)
- 2)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고 시인해야 함 (롬 10:10)
- 3)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토록 함께하심 (요 14:16~18)
- 4) 보배이신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내주하심 (고후 4:7~9)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자화상을 새롭게 그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 옛 사람의 자화상을 깨끗이 지우시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새 사람의 자화상을 그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를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빛과 희망과 기쁨과 감사로 가득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화상을 바라보고 꿈꾸고 믿고 말하고 노래하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막(막.) 10:46~52



사람은 늘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독선, 교만, 편견에 빠지거나 열등의식, 우울증,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인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와 공휼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 육적 맹인의 삶 (The life of the physically blind)

맹인 거지 바디매오는 예수님께서서 여리고를 떠나서는 길목에 앉아있었습니다(막 10:46).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구걸뿐이었고, 그로 인해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크고 작은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장애는 당사자와 가족에게 많은 눈물과 아픔, 시련과 역경을 가져다줍니다. 바울 사도도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시를 은혜로 여기고 장애를 극복했습니다(고후 12:7). 주님께서서는 어떠한 장애와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마 4:23~24)

2. 심적 맹인 (The mentally blind)

마음의 장애는 육신의 장애만큼 인간의 삶과 인격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자화상을 소유한 우리는 우리를 좌절과 낙심으로 몰아넣는 부정적인 말들로 인해 마음의 장애 가운데 빠지면 안 됩니다. 주님의 공휼을 입을 때까지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휼을 구하는 바디매오를 꾸짖었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치며 예수님의 공휼을 바랐습니다(막 10:47~48). 사람들은 육신의 장애가 있는 그를 멸시하고 천대했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위축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주십니다.

3. 영적 맹인의 삶 (The life of the spiritually blind)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먼 사람이 진짜 맹인입니다. 영적 맹인에서 벗어나려면 죄악 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바디매오는 예수님께서서 부르시자, 그의 유일한 소유인 겹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막 10:50). 예수님께서서 새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맹인으로 구걸하던 옛 삶을 다 던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확고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을 보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시고 그를 구원해주셨습니다(막 10:51~52). 주님께서서는 철저한 회개와 눈물의 기도로 옛 사람의 겹옷을 내던져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공휼을 구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주십니다.